

06

베트남

Vietnam

두 번의 파견이 그들과 내게 준 것들

- › 활동기관 : 베트남 과학기술원(VAST)
- › 자문분야 : IT 기술 지원
- › 자문내용 : 의료 정보 시스템 자문
- › 성 명 : 문 인 호



60대 청년의 새로운 출발

한국IBM에서 초기 프로그래머로 시작해 27년 동안 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 아웃소싱 서비스 등을 담당해 왔던 나는 2012년 8월 27일부터 1년 동안 베트남 하노이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연구소(NIICS)의 Green Data Center 및 Green ICT에서, 2014년 7월 25일부터 이듬해 7월 24일까지는 베트남 과학기술원(VAST: Vietnam Academy of Science) 산하 응용역학연구소(IAMI: Institute of Applied Mechanics and Informatics) 호치민 지청에서 병원 정보 시스템(HIS: Hospital Information Systems)을 자문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베트남에서 자문관 역할을 수행하였다.

NIPA 자문관은 다양한 개도국에 파견되는 만큼 파견 국가의 여건에 따라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나는 우리 문화와 매우 비슷하고 사람들이 순박한 베트남에서 일하게 되어 다행이었다. 특히 하노이에서 근무할 때는 함께 파견된 자문관들이 20명 정도여서 외롭지 않았고, 먼저 파견 근무 중인 선배 자문관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남쪽 호치민에 근무할 때에는 6명의 자문관들과 함께 파견되어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면서 문제없이 자문관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아쉬움이 컸던 첫 번째 자문관 활동

2012년 8월 하노이에 도착해 보니 2011년 NIICS에 파견되어 ICT 자문을 담당하던 차현선 자문관과 환경부의 정혁진 자문관이 공동으로 'Green Growth and Green IC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Vietnam' 국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었다. 11월 16일로 예정된 세미나는 파견 기관인 NIICS와 환경부 산하 기관인 환경연구소(ISPONRE)가 주



관 기관이었고, 대사관과 NIA에서 공동으로 비용을 지원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이미 두 자문관이 스폰서 확보를 비롯하여 의제 수립 및 주제 발표자 섭외까지 모두 마친 상황이라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행사 준비에 참여했다. 그런데 차현선 자문관의 연장 근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급하게 귀국을 하게 되었다. 결국 정혁진 자문관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이미 기본 일정과 주제 발표자 섭외까지 완료된 상태여서 큰 문제없이 세미나를 마칠 수 있었다.

다음 해인 2013년 봄에 Green ICT 세미나를 한 번 더 준비하던 중 스폰서 섭외에 난항을 겪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에 파견 기관의 부원장과 비용 문제를 협의하며 규모를 축소하고 기관과 자문관인 내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통부의 산하 기관인 연구소는 비용 마련이 어려웠고, 그렇다고 국제 세미나 개최를 위한 모든 비용을 나 혼자 부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결국 세미나를 취소하게 되었다. 대신 내가 원고를 쓰고 이를 다시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Green ICT 책자를 발행하기로 했

다. 다음 해인 2013년 봄에 Green ICT 세미나를 한 번 더 준비하던 중 스폰서 섭외에 난항을 겪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에 파견 기관의 부원장과 비용 문제를 협의하며 규모를 축소하고 기관과 자문관인 내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통부의 산하 기관인 연구소는 비용 마련이 어려웠고, 그렇다고 국제 세미나 개최를 위한 모든 비용을 나 혼자 부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결국 세미나를 취소하게 되었다. 대신 내가 원고를 쓰고 이를 다시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Green ICT 책자를 발행하기로 했



Green Data Center 소개 책자

다. 책자 발간을 위한 번역 비용은 내가 부담했고, 출판 비용은 책자에 A사 소개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A사 베트남 법인이 지원해 주었다.

간혹 자문관이 직접 스폰서를 찾는 것에 오해를 하거나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돕는 일이기도 하다. 앞서 말한 A사의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최대의 포털이지만 베트남에서는 그저 한국의 인터넷 기업으로 비춰질 뿐이다. 베트남어 버전을 개발·운영하는 초기 단계에서 A사라는 이름을 베트남 공공 기관들에 소개하는 것은 홍보 측면에서 대단한 가치를 갖는 일이라 할 것이다.

기관에서 규모 있는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는 이유는 국제 세미나 개최가 산하 기관의 중요한 업적이 되기 때문이다. 상위 기관인 정통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자문관들을 향한 기관장들의 기대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호텔에서 80명 정도 세미나를 진행할 경우 한화로 약 1,500만 원이 소요된다. 이에 비용 절감을 위해 기관 강당에서 간략하게 진행하자고 기관장에게 건의했지만, 이미 2012년에 성대한 국제 세미나를 경험했던 만큼 축소된 세미나는 탐탁해 하지 않았다. 당시로는 참 힘들고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경험들 덕분에 두 번째 파견에서는 보다 수월할 수 있었던 같다.

어쨌든 규모 있는 국제 세미나를 개최함에 있어 파견 기관의 비용 부담은 대체로 어렵다. 이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개도국도 비슷한 사정일 것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세미나 개최를 위하여 자문관이 스폰서를 찾는 일은 단계별 정책을 수집·자문하고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자문관 활동을 마무리하고 귀국한 지 1년. 다시 한 번 베트남 호치민에서 자문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두 번째 임기에는 이미 겪었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세미나를 준비할 수 있었고, 그렇게 2년차에는 계획한 대로 두 차례의 국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호치민 자문관 부임 후 세미나 전략

두 번째 자문관 파견이 결정된 후 서둘러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현업을 떠나고 시간이 경과된 만큼 신기술에 대한 정보 수집은 필수. 평소 친분이 있던 의료 정보 시스템 개발 업체와 의료 정보 컨설팅 업체들을 방문해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아울러 베트남에 솔루션을 소개해 줄 수 있는지 의사도 확인했다.

호치민에 도착해서는 우선적으로 파견 기관의 기능과 과제를 파악했다. 또한 병원 정보 시스템 개발 역량, 베트남 의료 기관들의 서비스 수준들을 파악하는 한편, 임기 동안 수행할 업무 계획과 세미나 전략도 수립하였다. 이에 당시 수립한 세미나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의료 세미나를 13년 4분기, 14년 1분기 2회를 개최하며, 시리즈로 진행을 한다.
- 기본 타이틀은 HIT(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2014, 2015로 진행한다.

1. HIT 2014

- 주제: 한국의 최신 병원 정보시스템 소개2차 본 세미나를 위하여 큰 아키텍처를 소개하는 목적
- 대상: 베트남 IT 전문가 및 병원 IT 담당자, 의대 교수, 보사부 IT 담당관 등 50명 이내
- 발표: 한국 병원 정보 시스템 개발 업체, 의료 컨설팅 업체
- 장소: 베트남 과학기술원 강당

2. HIT 2015

- 주제: 병원 전반적인 분야별 세미나
- 대상: 베트남 병원 의사, IT 관리자, 의대 교수 및 학생, 보사부 IT 담당관 등 70명
- 발표: 한국 의사, 의료 솔루션 업체, 의료 컨설팅 업체, 의료 장비 업체
- 장소: 호텔

세미나 진행을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중요한데, 베트남에 있는 나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에 한국에서 의료 정보 컨설팅 제공 및 의료 장비를 판매하는 B사와 협력하여 보다 원활한 추진을 가능케 했다.

Health Information Technolog 2014, 작지만 내실 넘쳤던 세미나

기본 전략 수립 후 세미나 주제에 맞는 솔루션을 결정하기 위해 베트남 병원 정보 시스템의 수준 검토를 시작했다. 한국과는 상황이 매우 달라 각각의 병원마다 독자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에 여러 병원을 묶는 클라우드(Cloud) 시스템을 소개하기로 결정하고 부서장과의 협의도 마쳤다. 주제 선정이 끝나고 의료 컨설팅 그룹과 협의를 통하여 솔루션 개발 업체 C사 대표와 논의를 시작하였고, 이후 대표이사가 호치민을 방문하여 세부 사항을 협의하는 한편, 세미나 주제와 협력 방안을 수립하였다. GEMMS는 병원 정보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이미 하노이에 지사를 설립하여 베트남 병원들에 솔루션을 소개하는 단계였고, 베트남 직원들을 채용하여 차후 유지·보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도움이 세미나의 내실을 높이는 방안이 되었고, 그들에게 있어 우리의 세미나는 기업을 알리는 최고의 홍보 기회가 되었다. 이와 함께 향후 사업 전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통합 서비스(SI: Service Integration)와 관련해 D사와 협의하여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했다. 세미나 참여 업체가 결정된 후에는 세미나 의제를 수립하는 한편, 매주 부서장과의 회의를 통해 크고 작은 결정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한국 기업들과 공유하며 준비를 이어갔다.

1차 세미나는 2014년 11월 13일 오후부터 14일 오전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부서장의 요청으로 둘째 날은 파견 기관인 응용역학연구소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병원 정보 시스템(Cloud Hospital Information Systems)의 세부 기술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응용역학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PACS(의료 영상 시스템)를 소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장소는 베트남 과학기술원 대강당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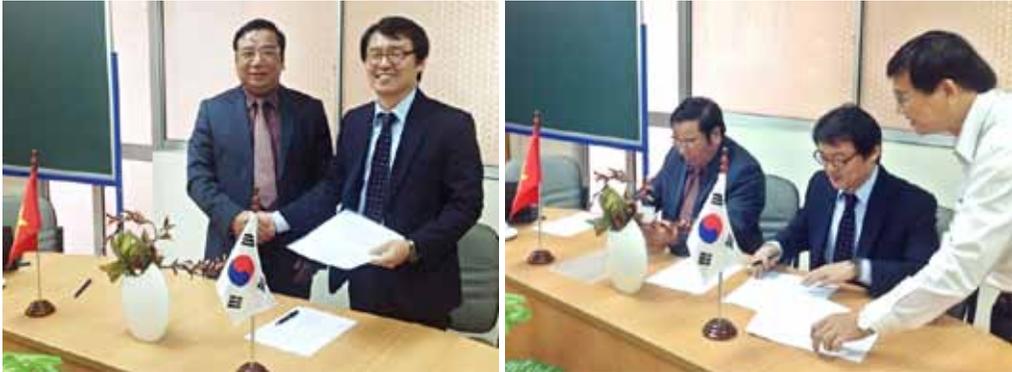
했으며,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에 시작하는 대신 다과를 준비해 참석자들과 발표자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부서장과 협의해 하노이 보사부, 과학기술부와 상위 기관장들, 호치민 병원장들과 의대 등 초청 대상자를 선정하고 1차 세미나 초청장을 발송했으며, 세미나 1달 전에는 의제가 설명된 2차 초청장을 발송하였다.

발표 자료를 챙기는 일에도 적잖은 노력이 필요했다. 사실 어떤 세미나라도 날짜에 맞춰 발표 자료를 작성·번역하는 것은 번거롭고 힘든 일일 터. 발표자들을 독촉해 자료를 받고, 내용 검토 후 수정 요청까지... 그렇게 자료가 확정된 후에도 번역과 검수를 거쳐 인쇄까지 진행하려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더욱이 자료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번역을 도와주는 직원이 며칠 밤을 새는 일까지 겪어야 했다.

준비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역시 통역이었다. 동시통역은 전문 장비와 여러 명의 통역사들이 필요했기에 순차 통역을 준비했으나 실제 시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세미나 참석자들의 대부분이 영어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응용역학연구소 호치민 원장의 환영사, 베트남 과학기술원 하노이 본청 부원장의 축사, 그리고 베트남 과학기술부 하노이 본청의 국제협력국장의 축사 등 귀빈 인사말 외에는 통역 없이 영어로 진행하였다. 발표 자료는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였으며, 세미나 장소에 스크린 2개를 설치하여 한쪽은 영어, 다른 한쪽은 베트남어 자막을 보여줌으로써 이해를 도왔다.

준비 단계에서 세미나 참석자를 50명 내로 예상했지만, 각 병원의 관리 책임자, 의대 교수, 응용역학연구소 연구원 등을 포함하여 6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세미나에 관심이 높았다. 특히 호치민국립대학 생명 의학과 Toi(또이) 교수는 예정에 없던 발언을 자청하여 베트남의 병원 정보 시스템 솔루션





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병원 정보 시스템 적용에 대한 결정권자인 보사부 IT정책 담당 국장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세미나 진행과 더불어 파견 기관의 주요 요청 사항이었던 한국과의 MOU 체결도 성사되었는데, D사의 경우 이미 베트남에서 인지도가 높은 기업이라는 점에서 병원 정보 시스템 협력 MOU에 대한 베트남 측의 만족도도 높았다.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2015, 1차 세미나의 성공을 발판으로

HIT 2014를 성황리에 마치 후 이내 HIT 2015 준비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베트남의 병원 IT 시스템 현황을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 아직은 베트남에 HIS를 구축하는 것이 빠르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많은 논의 끝에 2차 세미나의 주제는 PACS(의료 영상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베트남은 아직도 필름 X-Ray를 사용하며, 병원에 지급하는 보험 수가도 필름에 한정하고 있다. 이미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의료 영상은 의료 보험 수가 적용을



받지 못하는 만큼 의료 영상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사부 시행령부터 바뀌어야 했다. 필름의 디지털화는 비용 측면에서도 이득이 있기 때문에 모든 병원이 추가 비용 없이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였다. 정책 변경을 위하여 보사부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2015년 전반기에는 디지털 의료 영상을 수가에 포함하겠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보사부 담당자를 비롯하여 1차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한 IT 정책 담당 국장의 참석도 부탁했다.

2차 세미나의 의제를 의료 영상 시스템(PACS)으로 결정하였으나, 베트남 보사부는 성과 오지의 의료 서비스 개선을 우선 정책으로 Telemedicine(원격 진료 서비스)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이에 2차 세미나 제목에 Telemedicine을 추가했고 발표자들에게도 Telemedicine을 주제로 선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렇게 보사부의 중점 사항인 Telemedicine이 세미나 발표가 포함됨으로써 병원 관계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관심도를 크게 높일 수 있었다.

2차 세미나는 기본 전략에 맞춰 현지 병원 전반에 한국의 첨단 기술을 소개하는 국제 세미나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현직 의사와 국내 의료 장비 업체를 추가로 섭외하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1차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한 보사부 IT 정책 담당 국장을 강사로 초빙하고 베트남 의료 서비스의 현황 및 계획을 축사와 함께 발표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의사들 중 발표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영상의학과 교수에게 발표를



부탁할 수 있었다. 의료 장비 업체로는 초기 진단에 필요한 초음파 스캐너 장비를 휴대용으로 개발한 E사 대표와 협의하여 세미나 참석과 함께 장비 소개 및 시연을 합의하였다. 시스템 통합을 담당하기로 했던 D사는 장기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 해외 사업을 수행하는 컨설팅 기업인 F사를 초대하기로 했다.

국제 세미나의 구색을 맞추고자 부서장과 친분이 있는 대만의 국립중앙대 교수를 초빙하여 바이오 관련 빅 데이터 처리를 발표하기로 하였고, 1차 세미나에서 찬조 강연을 해 준 호치민국립대학 생명의학과 토이(Toi) 교수도 초청했다. 이외에도 파견 기관인 응용역학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의료 영상 시스템을 병원 2곳에 구축한 사례 발표도 추가하여 의제를 확정하였다.

병원 관련 의사 결정권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병원의 전반적 분야를 포함하는 2차 국제



세미나인 만큼 장소를 호텔로 결정했다. 다만 특급 호텔보다는 베트남인들에게 친숙한 중급 호텔을 선택하여 장소 임대비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 1차 세미나보다 규모가 커진 만큼 챙기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많았다. 그러나 한 번 경험한 파견 기관의 직원들도 점검 사항들을 미리미리 챙겨 주었고, 덕분에 준비를 수월하게 마칠 수 있었다.

IT 관리자를 비롯하여 각 병원의 의사, 의대 교수 및 대학원생, 그리고 호치민 각 부처의 기관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응용역학연구소 호치민 원장의 환영사, 베트남 과학기술원 부원장의 축사, 그리고 과학기술부 IT 담당 국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보사부 IT 정책 담당 국장의 베트남 의료 서비스 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준비된 의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는 분야별로 나뉘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세부 기술 분야에 대한 토론도 진행되었다.





HTV 뉴스 화면 갈무리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로비에서는 휴대용 초음파 장비와 호치민 국립국제대학의 의료 기기, PACS 등의 시연이 진행되었다.

세미나 중간에는 호치민 제2 아동병원과 응용역학연구소 간 PACS 구축을 위한 MOU가 체결되었고, 특히 초음파 휴대 장

비에 관심이 많은 의료 교육 기관으로부터 장비 지원 요청을 받아 세미나 후 시연 장비를 교육 실습용으로 기증하였다. 세미나와 관련된 모든 진행 과정은 국영 TV 방송사인 VTV와 호치민 TV 방송국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행복했던 두 번의 자문관 활동을 돌아보며

자문관으로서 활동하는 1년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인 만큼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또한 파견 기관 역시 자문관을 통해 선진 사례를 듣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싶어 하는 만큼 내실 있는 국제 세미나 개최는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첫 자문관 활동에서 느낀 아쉬움이 큰 만큼 두 번째 파견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활동을 준비했다. 출국 전부터 최소한 두 번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문관의 활동비로 진행이 가능한 수준의 세미나를 준비함으로써 적어도 경비 부족으로 인해 취소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비록 세미나에 참가한 한국 기업들에게 참가 사례비는 지불하지 못했지만, 해외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회사와 협조함으로써 서로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현지 혹은 한국 기업들로부터 행사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이때에는 자문관은 관여하지 않고 기관의 재무부서를 직접 연결시

켜 작은 오해의 소지도 남지 않도록 했다.

계획된 두 차례의 의료 정보 시스템 세미나를 마치고도 아쉬움이 남는 것은 베트남의 디지털화된 의료 영상의 보험 수가 적용이 미뤄진 것이다. 당장 시범 사업으로라도 PACS를 구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더 지연된다는 것이 안쓰럽게까지 느껴졌다. 먼 베트남까지 와서 솔루션을 소개하고 세미나를 도와준 한국 기업과 관계자들에게 미안함도 크다. 이 부분은 다른 자문관들도 기억했으면 한다. 기관이나 기업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 확정되기 전까지는 결과를 예측해 확답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원 업체들과 협의함에 있어 단어 사용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물론 악의는 없겠지만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이라는 좋은 환경에서, 더욱이 문화와 환경 기후도 완전히 다른 북쪽 하노이와 남쪽의 호치민 모두에서 좋은 사람들과 보람 있는 자문관 생활을 했기에 나는 운이 좋고 행복한 자문관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준 NIPA와 월드프렌즈 NIPA 자문단 프로그램에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 나보다 더 능력 있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에게도 많이 홍보할 것을 약속한다.



베트남
문인호

- 홍익대학교 대학원/ 전자계산/ 석사
 - 前 (주)한국 IBM 근무
 - 前 SQT 대표이사
 - WFK NIPA Advisors
1. 베트남 정통부산하 정보통신 연구소 그린 데이터센터, 하노이
 2. 과학기술원산하 응용역학 연구소 병원정보시스템, 호치민 파견